



박소현의 섹.시.토크

친구 A는 칭찬에 매우 인색하다. 나는 그녀가 한번이라도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칭찬은커녕 불평불만이나 쏟아내지 않으면...

다들 놀라서 눈이 동그해졌다. B의 남편은 성격이 없기로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랬던 A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그건 친구B로부터 괜찮은 정보 하나를 전해 듣게 되면서부터이다. 지난번 모임에서 B가 그랬다.

르겠다며 친구 B는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평생 안 하던 칭찬을 갑자기 하러니 A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어머, 자기 사이즈가 그렇게 컸었나?"

"어머, 자기 사이즈가 그렇게 컸었나?" A는 눈을 질끈감는 심정으로 칭찬을 이어나갔다

"당신 몸매 정말 근사해, 누가 사슴대로 보겠어. 이십대 저리 가라야. 특히 뒷모습을 정말 환상인데?"

칭찬은 남편도 춤추게 한다?

서 너무 좋아 넘어가는 시늉까지 아무렇지 않게 연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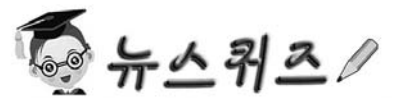
그래서 이 부부는 그날부터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며 잘 살게 되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와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몇 달 뒤, A는 시커먼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꺾고 건조하게 말했다.

"남편이 바람났어." 지나친 칭찬이 화를 불렀다고 한다. 무덤덤한 A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무렵에는 그저 아내만 바라보기도 급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야말로 환생한 변강쇠라도 되는 줄 알고 넘치는 성적 에너지를 나눠 줄(?) 다른 상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편을 향한 칭찬도 결국은 과유불급의 원칙을 따르는 가 싶어 우리는 좀 씁쓸했다. 그 당시 남편을 향한 칭찬이 좀 뜸해지고 있었던 B는, A의 소식을 듣고는 여기서 칭찬을 멈춰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더니, 결국은 고래가 춤바람이 나서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인 것일까? 아니 그것은 아마도 고래와 인간의 진정한 소통보다 남자와 여자의 그것이 더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연애칼럼니스트>



73. 최근 5·18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또는 무대 예술 작품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27년 전 광주의 이름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있는가 하면...

- ①다이하드 4 ②화려한 휴가 ③짱뚱 ④오월의 신부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20일(음 6월 7일 乙卯)

36년생 흉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한다. 48년생 좋은 일 끝에 흉한 일이 있다. 60년생 안과 박을 동시에 주의하라...

37년생 신사가 생긴지만 주의도 기울이라. 49년생 물건을 잃었다 찾는 기분이야. 61년생 표리가 부당한 친구를 피하라...

38년생 신문서와 구문서가 교체된다. 50년생 기쁨도 크지만 고생도 크다. 62년생 기대했던 중언은 오히려 실망을 가져온다...

39년생 피곤한 하루지만 이득은 있다. 51년생 명예 맞는 계획을 세우면 반은 성공이다. 63년생 세밀한 살갓도마와 비장대력은 꼭 세워두라...

40년생 좋은 생각이 좋은 인연을 만드니 심성을 끈끈하게. 52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64년생 사기에 휘둘리는 것은 자신의 사기성도 한 복을 한다...

41년생 이사변동수가 있으니 준비를 하라. 53년생 밖의 일이 잘 되려면 내사를 잘 다스려야 가능하다. 65년생 자신의 불평은 혼자서 감수하라...

42년생 친지들의 시기가 보이려고 하니 다시한번 주변을 살펴 보라. 54년생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하니 꼭 가아할 곳만 가아한다. 66년생 자신의 건강도 살펴봐라...

43년생 새로운 문자가 있으나 신봉자가 없다. 55년생 근친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67년생 첫째도 조짐이요 둘째도 조짐을 해야 할 하루다...

44년생 부부간의 불평은 사소한 관심에서 온다. 56년생 제사가 즐겁고 잘 풀리지만 조짐은 하라. 68년생 희망이 다가오니 가서 맛을 준비를 할해야 한다...

45년생 기본 좋은 하루가 되니 마음 놓고 지내라. 57년생 길한 일이 생기려는 징후가 보인다. 69년생 소산스런 상황에서 벗어 나지만 아직은 아니다...

46년생 어느 길도 물러서 가야 할 관이다. 58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자신이 빠지지 않으면 되리라. 70년생 자신의 행복은 자신만이 이룰 수 있다...

47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리라. 59년생 조급한 인내라 시비가 생길라. 71년생 그동안 기다렸던 일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검색절정 키워드

인기 영어 강사이자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인 이지영(38)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가짜 학위료 광주비엔날레 내국인 공동 예술감독 선임이 취소된 신영아씨에 이어 이씨도 화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KBS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 '굿모닝 팝스' 진행자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홈페이지에는 이씨를 비난하는 글을 비롯, "실력은 있지 않냐"며 안타까워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혼 공식 발표 앙리 부부, 위자료 190억원

'라이언 킹'요미우리의 이승엽이 원손 엄지에 대한 재검사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검색 빈도도 많았다. 수술 가능성까지 제기될 만큼 상태가 악화됐다는 보도 때문인지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공개구혼을 한 20대 모델 이성린(여·29)씨와 최근 니콜 메리와와 이혼을 공식 발표한 티에리 앙리(30·바르셀로나)도 위자료로 1000만 파운드(한화 약 190억원)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다. 케이블 채널에서 나이를 속인 연예인들을 보도하면서 프로필상 스물아홉(1978년생)이지만 실제 나이가 서른아홉인 것으로 밝혀진 '베이비복스'의 원년멤버인 이가기도 화제가 됐고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헤르미온느 역할을 맡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엠마 왓슨(17)도 소녀 이미지를 벗고 성숙한 여성미를 뽐내는 사진이 '틴 보그'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검색어에 올랐다...



최근 이혼을 공식 발표한 세계적인 축구스타 앙리와 니콜 메리. 영국 출신의 모델인 니콜은 영화 '제5원소'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game in progress with numbered stones and a '참고도' (reference diagram).

Advertisement for '바둑소식' (Go News)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a match between Park Ji-eun and Dai Baimei.

Advertisement for '바둑소식' (Go News)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a match between Park Ji-eun and Dai Baimei.

Language section '굿모닝 잉글리쉬 <952>' with the title 'That's very kind of you, but~' and a dialogue about a meal invitation.

Language section '오하오우 니혼고 <952>' with the title '一羽(いちわ)いくらぐらいなんですか。' and a dialogue about a restaurant.

Language section '니하오 쑹구위 <142>' with the title '你的韩汉词典呢' and a dialogue about a dictionary.

Language section '한자 이야기 <569>' with the title '절치부심(切齒腐心)' and a story about a man's ambition.